

노인의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가 심리적복지감의 융복합 형성에 미치는 영향

최경민*, 임왕규**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노인복지학과 박사과정*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The Effect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the Culture and Education Activiti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Convergence Formation of the Elderly

Kyung-Min Choi*, Wang-Kyu Lim**

Dept. of Elderly Welfare, Gradual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hD*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Gradual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요약 본 연구는 노인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가 노인 심리적복지감의 융복합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수도권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 등에서 문화교육활동에 참여 중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총 255부의 자료를 모아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목표지향형과 활동지향형(독립변수)이 생활만족도(종속변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활동지향형과 학습지향형(독립변수)이 자기효능감(종속변수)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활동지향형과 학습지향형(독립변수)이 참여태도(종속변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습지향형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목표지향형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목표지향형과 참여태도와의 관계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노인복지 증진과 관련된 정책 제언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 융복합, 심리적복지감, 생활만족도, 자기 효능감, 참여태도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the effect of the Culture and Education Activitie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Convergence Formation of the Elderly. This study is based on the quantitative research of 255 older adults who have participated on the Culture and Education Activities programs run by welfare center and culture center for the elderly at Seoul area.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ocial Goal-Oriented and Activities-Oriented ha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Second, Activities-Oriented and Learning-Oriented has effect on Self-Efficacy. Third, Activities-Oriented and Learning-Oriented has effect on Participation-Attitude. Fourth, but relations of the Learning-Oriented and Life-Satisfaction, Goal-Oriented and Self-Efficacy, Goal-Oriented and Participation-Attitude were independent of each other. This study can be use to propose policies related to the elderly welfare promotion.

Key Words : Culture education activity, Participation motivation, Convergence, Psychological Wellbeing, Life Satisfaction, Self-Efficacy, Participation Attitude

Received 14 April 2015, Revised 20 May 2015

Accepted 20 June 2015

Corresponding Author: Wang-Kyu Lim (Dept. of Management Information, Gradual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Professor)

Email: wklim@hoseo.edu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한국인의 평균 기대수명이 82세로 세계보건기구(WHO) 194개 회원국 중 공동 9위를 차지했다. WHO가 발표한 ‘2015 세계보건통계’에 따르면 2013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인 기대수명은 평균 82세였다. 2012년 출생아를 기준으로 한 지난해 조사보다 한 살 늘어난 것으로, 1990년(72세)과 비교하면 10살 길어졌다. 남자는 평균 80세로 처음으로 80세를 넘었고, 여자는 87세였다[20].

이렇게 한국인의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100시대를 논하게 되었다. 우리 인간이 100세까지 삶을 유지한다고 했을 때 걸어진 노년기로 인하여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본다. 즉 은퇴 이후 소득원이 상실되거나 감소됨으로 인한 노후 빈곤문제와 신체적·정신적 노화로 인한 각종 질병에 취약한 장수 노인들의 건강문제 등이다.

예컨대, 지난 2013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48.0%로 가장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으며[21], 노인들의 자살 증가율도 OECD 국가 중 1위인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이 2000년 34.2명에서 2010년에 80.3명으로 급격히 늘어났다[22].

따라서 100세 시대에는 얼마나 장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면서 얼마나 삶의 질이 높게 살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걸어진 노년기의 노인문제해결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는 Havighurst, R. J.(1968)의 활동이론(Activity theory)과 이러한 활동이론에 근거한 여러 대안이 논의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 대안 중에서 최근 노인의 평생교육을 포함한 문화교육활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활발하다.

이정서(2015)는 노인 문화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종합적인 요인들에 있어 노인들 대부분이 경제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고,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경험하는 여가·취미·문화 활동은 대부분 라디오 청취 및 TV시청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노인은 신체적 경직성으로 인하여 외출보다는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들의 문화활동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무료 또는 실비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1].

최성재(2012)는 노년기는 건강과 수입, 사회활동, 그리

고 배우자와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를 상실해 가는 시기이며, 따라서 신체적으로나 심리사회적으로 위기에 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생활의 변화 혹은 위기는 곧 정서적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미리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대처방안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교육이라고 주장하고, 교육을 통해 올바른 지식과 대처방법을 학습하고 교육 과정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지지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2].

장찬애(2013)는 점차 핵가족화 되는 우리나라의 현실 정은 신체적·심리적으로 취약해짐에 따라 노인이 사회에서의 역할이 점차 상실 되고 있어,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 등을 시도하지만 대체로 지지체계가 미비하여 스스로의 한계에 부딪쳐 체념하고 좌절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가족과 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이해와 인정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아 이를 위한 가족의 변함없는 관심과 사회활동을 위한 지역사회와의 지속적인 기회제공과 지원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았다[3].

최용구(2012)는 노인들의 문화활동 참여 기회와 노인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인 문화복지사 제도 등 보다 폭넓은 정책이 시행되어 취미·여가 등 문화복지서비스 욕구에 맞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4].

이처럼 문화교육활동은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자기 효능감 증진으로 이어져 고독감 해소 등 여러 노인문제 해결과 노년기 심리적복지감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은퇴이후 문화교육활동 참여가 노인의 심리적복지감 형성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 연구하려는 본 연구는 평균수명 증가로 인한 여러 노인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노인 문화교육활동과 관련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노인문화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을 통한 생활 만족 및 삶의 질 간의 관계에 주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1,3], 노인문화교육 참여동기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이들 유형에 따른 문화교육활동 참여를 통한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노인 문화교육 참여동기가 참여노인의 심리적복지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

하여 실증적으로 탐구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100세 시대 장수사회의 노인 문제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는 데에 의미를 부여하며, 본 연구가 노인문화교육에 대한 질을 높이고 문화교육활동에 대한 사회인식을 제고시키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문화교육

2.1.1 문화교육의 개념

문화교육은 단순히 생각하면 ‘문화를 가르치는 일’로 규정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자들은 문화교육을 ‘문화에 대한 교육’, ‘문화를 통한 교육’, ‘문화를 위한 교육’의 3가지로 크게 분류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교육’은 교육을 통하여 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문화를 통한 교육’은 교육의 수단으로 문화와 관련된 소재를 활용하는 교육을 말하고, ‘문화를 위한 교육’은 문화의 발전 및 다음 세대로의 전달을 위하여 이에 대한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6].

Lipp(1995)은 문화개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파악하고, 문화의 개념이 함축하고 있는 다가치성(Plurivalenz), 다시각성(Mehrsichtigkeit), 다의성(Mehrdeutigkeit) 등 문화의 특성에 대해 어떠한 의미를 문화교육으로 규정해야만 하는가에 현실적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조정래(2014)는 문화교육이란 우리의 삶속에서 접하고 있는 문화의 가치를 인식하고, 교육을 통하여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며, 문화생활 안에서보다 창조적이며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며, 문화적 감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문화적 능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문화, 예술, 교육은 서로 다른 영역이지만 예술과 교육은 문화의 일부이며, 문화와 예술은 교육의 내용이 되고 문화와 교육활동 과정에서 예술을 체험하기 때문에 상호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다. 즉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은 큰 범주에서 많은 유사성을 지니는 분명한데, 예술교육이 문화교육은 아니지만 문화교육과 예술교육을 연계하여 접근하는 것은 예술이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는 교육적 가치

가 높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최근 문화와 예술분야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와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교육영역에서 학제 간 혹은 예술장르간의 융합활동을 통한 다양한 교육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한다.

예컨대, 우리나라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사용하는 문화예술에 대한 용어 정의는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하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고 한다[6].

이러한 문화교육의 개념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본 연구에서는 은퇴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복지관 등에서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사진 등 은퇴노인들의 취미오락 활동과 연관된 문화예술교육으로 넓게 정의하고자 한다.

2.1.2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

본 연구에서 문화교육활동에 대한 개념정의를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넓게 정의하였으므로,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에 대한 선행연구는 평생교육 참여동기로 확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김대명(2015)은 평생교육 참여동기는 교육서비스 질은 교육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교육기관 및 학습자와 관련한 유형 및 무형의 서비스 상태를 의미하며,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에 참여하게 되는 동인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프로그램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학습자가 설정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여 수업의 여러 요소들에 대해 만족한 정도로 학습결과에 대한 성취도, 만족도 등을 기준으로 하며, 참여동기가 높은 학습자는 교육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교육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나 프로그램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장 하였다[7].

또한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 이론을 고찰해보면, Houle(1961)의 모형은 모든 성인교육의 기본적인 참여동기를 목표지향, 활동지향 및 학습지향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고, Miller(1967)의 장-힘 모형은 생애초

기 단계에는 평생교육이 물리적인 생존, 안전 및 애정의 기본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관심을 두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활동의 분리에 대한 보완으로 평생교육참여는 현실세계에 대한 적응을 돕는다는 것이다. 또한 McClusky(1971)의 잉여이론은 성인기에 필요한 에너지량과 사용 가능한 에너지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균형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김종식(2014)은 평생교육참여 동기유형을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그리고 학습지향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하여 탐구하였다. 여기에서 목표지향형 참여동기는 전문적인 지식, 기술의 습득, 직업상의 향상 등과 같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목표를 지닌 유형을 말하고, 활동지향형 참여동기는 학습에 참여하는 행위나 활동 그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것을 가리키며, 학습지향형 참여동기는 지식이나 배움 그리고 지적호기심 그 자체를 좋아하는 유형을 말한다고 하였다[8].

Darkenwald & Merriam(1892)은 성별참여 동기의 유형을 비교해 본 결과 남자는 대체로 성취지향적이며 외적 기대요청에 따른 동기와 직업과 관련된 동기 등 외재지향성이 강한 반면, 여자는 내적 만족이나 지적 호기심의 충족 등 내재지향성이 강한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에서의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을 참조하여, 본 연구에서는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의 기원이고 모든 성인교육의 기본적인 참여동기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Houle(1961)의 모형인 목표지향, 활동지향 및 학습지향의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2 심리적복지감

2.2.1 심리적복지감의 개념

심리적 복지감은 매우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학자에 따라 정의가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생활이나 인생의 전반에 있어서 스스로 느끼는 행복감과 만족감의 주관적 평가라고 정의하고 있다[9].

심리적복지감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서 심리적 안녕상태(well-being), 복지(welfare), 만족(satisfaction), 행복(happiness), 적응(adjustment) 및 사기(morale) 등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개념상의 혼돈은 주로 심리적복지감 개념이 갖는 추상적이고 복합적인 성격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10].

이의걸·조성숙(2014)은 심리적복지감(Psychological wellbeing)이란 개인의 심리적 건강 상태 뿐만 아니라 신체의 복지, 물리적 복지와 함께 개인의 생활의 질을 구성하는 하나의 지표로, 전반적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이며 삶의 과정에 있어 성공적인 적응을 측정하는 개념이며, 또한 심리적 복지감은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 행복감 또는 생활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감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11].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긍정적 정서, 행복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신 건강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과 우울, 분노, 심리적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역기능을 연구하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한다.

즉 Lawton(1991)은 심리적복지감이 긍정과 부정의 연속선상에서 개인이 자신의 삶속에서 이루어지는 경험에 대한 정서적 반응, 개인의 내부 경험의 다른 요소들이 동등할 때 인간의 일반적 바램은 기분이 좋고, 평정심을 가지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이라고 정의하였으며, Bradburn(1969)은 이차원적 분류를 이용해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부정적 측면의 평가를 포함한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심리적복지감에 대한 개념정의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긍정적 정서, 행복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여 노년기의 노인이 주로 느끼는 정신적 만족도로 규정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2.2.2 심리적복지감의 구성요인

많은 선행연구들은 심리적복지감의 다양한 측면을 포함하여 심리적복지감의 구성요인을 달리하고 있다. 손덕순(2005)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정신건강을 긍정적 측면으로는 심리적복지감으로, 부정적 측면으로는 우울로 구성하고 있다[12].

이현지·남현주(2003)의 연구에서는 심리적복지감을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우울증, 외로움으로 구성하고 있어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13].

김영혜(2004)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측면에서 생활만족도와 행복감으로, 부정적 측면에서 우울로 구성하고 있다[14]

배진희(2006)의 연구에서는 긍정적 측면에서 생활만

족도와 부정적 측면에서 우울로 심리적복지감을 구성하여 조손을 양육하고 있는 조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감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어 심리적복지감의 부정적 측면과 긍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감정적이고 인지적인 심리적복지감의 다양한 개념을 포괄하고 있다[15]

이와 같이 심리적복지감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공존하는 관점을 위한 선행연구들은 심리적복지감을 생활만족도, 우울, 행복감, 자아존중감, 외로움 등으로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심리적복지감의 구성요인을 참고하여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복지감의 개념을 긍정적 정서, 행복감,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하여 노년기의 노인이 주로 느끼는 정신적 만족도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 여러 요인 중 생활만족도, 자기 효능감, 참여태도의 세 가지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2.3 문화교육활동과 심리적복지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및 가설설정

본 연구에서 문화교육활동에 대한 개념정의를 은퇴한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복지관 등에서 운영하는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 등 평생교육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으로 넓게 정의하였으므로, 문화교육활동과 심리적 복지감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은 평생교육까지 확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김종식·임왕규(2014)의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평생교육 참여동기와 교육만족 및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연구에서 평생교육 참여동기 유형 요인으로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및 학습지향형의 세 유형을, 그리고 교육만족도 구성요소로는 교육내용, 교육환경, 강사의 질 및 교육결과의 네 요인을 검토한 결과 평생교육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으며,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8].

전상완(2010)의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첫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정도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정도는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들은 평생교육과 지역복지를 위해 운영 중인 주민자치센터에서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삶에 긍정적인 활력소로 작용하고, 신체와 정신적으로 건강을 유지·증진시킴에 따라 사회적으로 받던 소외감과 정신적 우울, 외로움 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6].

전명수·송선희(2012)의 노인 평생교육 참여 동기 유형이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지를 탐구한 연구에서 첫째는 교육만족도와 삶의 변화에서 학습 지향유형이 활동 지향유형에 비해 교육만족도도 높고, 삶의 변화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는 교육만족도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교육 참여 동기 유형의 하위 변인들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 학습지향과 목표지향 유형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는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삶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가정, 사회·여가, 신체·정서, 행복감, 삶의 변화 전체에서 학습 지향 유형과 목표지향 유형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7].

이러한 김종식·임왕규(2014)의 선행연구는 본 연구의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로 연구의 출발점을 삼는데 중요한 연구근거가 되었으며, 전상완(2010)의 연구와 전명수·송선희(2012)의 연구는 문화교육활동 결과에 따른 효과성을 고찰하는 본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연구가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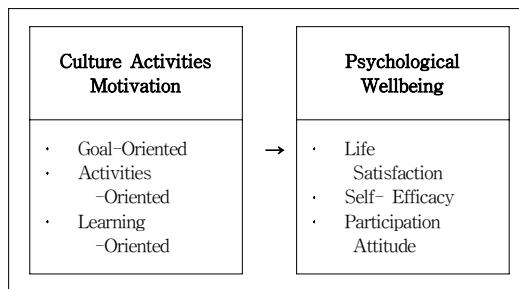
- H-1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는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1 목표지향형은 생활만족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2 활동지향형은 생활만족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1.3 학습지향형은 생활만족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는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1 목표지향형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2 활동지향형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2.3 학습지향형은 자기효능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는 참여노인의 참여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1 목표지향형은 참여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2 활동지향형은 참여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H-3.3 학습지향형은 참여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 문화교육활동 참여 동기의 지표로서 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을 하위변인으로 채택하였으며, 자원봉사에 참여중인 노인을 대상으로 이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인 노인의 심리적복지감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심리적복지감의 세부요인으로는 이론적 배경에서 기술하였듯이 생활만족도, 자기 효능감, 참여태도를 하위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들 변수들 간의 관계를 나타낸 연구모형은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노인복지관 등에서 문화교육

활동에 참여 중인 노인 300명을 비확률표집 방법 중 유의 표집법을 사용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조사는 20일간(2015. 2. 20 ~ 2015. 3. 12) 실시하였다. 총 300부를 배부하여 수집된 자료는 총 280부였으며, 이중 결측값이 있는 25부를 제외한 255부를 자료분석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Win Ver.18.0을 이용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으로 파악하였고, 두 번째는 측정도구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요인분석은 카이저 규칙이 있는 직각 회전방법인 배리맥스를 이용한 주성분 요인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측정변수의 신뢰성은 신뢰도 분석(reliability analysis)으로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끝으로 세 번째는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에 따른 노인의 심리적복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으로 확인하였다.

3.3 변수의 측정도구

3.3.1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의 3가지 하위요인은 김종식(2014)의 연구[18]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목표지향형’은 “문화교육활동에 나의 일상생활을 잘하기 위하여 참여하였다 - GO1”, “문화교육활동에 학력향상, 정보획득을 위하여 참여하였다 - GO2”, “문화교육활동에 바람직한 부모, 배우자, 자녀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참여하였다 - GO3”의 3문항, ‘활동 지향형’은 “문화교육활동에 삶의 활력을 얻으려고 참여하였다 - AO1”, “문화교육활동에 보람된 여가생활 활용을 위하여 참여하였다 - AO2”, “문화교육활동에 봉사활동을 위하여 참여하였다 - AO3”, “문화교육활동에 가정, 사회의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하여 참여하였다 - AO4”의 4문항, ‘학습지향형’은 “문화교육활동에 지식추구를 위하여 참여하였다 - LO1”, “문화교육활동에 배움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하여 참여하였다 - LO2”, “문화교육활동에 학문에 대한 열정을 위하여 참여하였다 - LO3”의 3문항, 총 10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3.2 심리적복지감

‘생활만족도’는 장찬애(2013)의 연구[3]에서 사용된 도

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나의 지난 평생은 성공적인 편이다 -LS1”, “나의 지난 평생은 즐겁고 기쁜 일이 많아 지난날을 회상하기를 좋아한다 -LS2”,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다복한 편이다 -LS3”, “나는 현재에 생활방식에 만족한다 -LS4”, “요즘 나는 살맛이 난다 -LS5”, “앞으로 살아가는데 희망이 있다 -LS6”, “나이가 들어보니 세상이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느껴진다 -LS7”의 총7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자기 효능감’은 박충배(2014)의 연구[19]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나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가지 일들을 잘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SE1”, “다른 사람보다 나는 대부분의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SE2”, “상황이 별로 안 좋아도, 나는 무슨 일든 상당히 잘할 수 있다 -SE3”, “어려움이 여러 번 닥쳐와도, 나는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SE4”, “나는 노력을 기울이면, 무슨 일든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다 -SE5”의 총5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참여태도’는 최용구(2012)의 연구[4]에서 사용된 도구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이용하였으며, “문화예술프로그램은 상쾌함을 느끼게 한다 -PA1”, “문화예술프로그램은 내게 즐거운 경험을 제공 해준다 -PA2”,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는 가치 있다고 생각 한다 -PA3”, “문화예술프로그램 참여는 중요한 것이다 -PA4”의 총4문항을 Likert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3.4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

본 연구는 요인들 간의 인과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므로 요인분석방법으로는 공통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 중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기법인 주성분 요인분석(PCA, 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의 회전방법으로는 요인들 간의 상호독립성을 유지하여 회전하는 방법인 직각회전(Varimax Rotation)방식을 선택하였다.

주성분 요인분석의 주된 목적은 자료의 축소, 즉 많은 변수들을 더 적은 수의 주요한 성분(Principal Component)으로 줄이는 것에 있으며, 총 분산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요인을 추출한다. 직각요인회전은 요인의 직교성(Orthogonality)을 유지한 채 회전하므로 요인 간 상관관

계는 0이 되며, 다변량분석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의 문제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인수의 결정방식은 아이겐값(Eigen-Value)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방법에 따라 아이겐값이 1 이상인 요인을 선정하였다. 아이겐값은 관찰된 원래 변수들의 변량 중 어떠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분산의 양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인이 변수를 몇 개나 설명하는가를 나타낸다.

<Table 1>의 탐색적 확인요인분석에서 아이겐값이 1 이상인 6개의 요인이 탐색되었으며, 각 요인은 1개 이상의 변수를 설명하고 있다. 이 6개의 요인은 전체변동의 62.5%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일부 전문가들은 각 요인들이 누적적으로 전체 공통분산의 75% 이상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하지만 50%이상이면 설득력이 있다고 보는데 62.5%이면 양호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변수와 요인간의 상관관계정도를 나타내는 요인적재량(Factor Loading)은 단일차원에 대한 일반적 요인분석의 경우 0.5이상이면 유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증연구에서의 요인적재량은 대부분 0.5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가 다른 변수에 의해 잘 설명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Kaiser-Meyer-Olkin (KMO) 검정을 진행하였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 모두 KMO 값이 0.8이상으로 매우 좋은 편으로 나타남으로써 요인 분석을 위한 변수들의 선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함께, 선정된 변수들로 Barlett의 구형성 검정을 통해 요인분석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 유의확률이 $p < 0.001$ 로 귀무가설을 기각하여, 요인 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이를 가설검증에 사용하였다.

3.5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경우 개념의 조작적 정의를 토대로 복수항목을 통해 구성개념을 측정하고 있으며, 각 구성개념 내 적일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Cronbach's α 계수(Coefficient)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Cronbach's α 계수는 둘 이상의 개념 예측변수들의 집합에 대한 신뢰도 측정에 이용되며, 신뢰계수 값의 범위는 0과 1이다. 일반적으로 신뢰도계수는 0.6이상이면 신뢰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전체 척도를 하나의 척도로

〈Table 1〉 Factor Analysis

Item	Factor					
	LS	SE	PA	AO	LO	GO
LS-1	.769	.086	.066	.124	.034	.074
LS-2	.766	.104	-.096	-.049	.053	.116
LS-3	.697	.162	.013	.101	-.111	.028
LS-4	.679	.253	.098	.124	.025	.052
LS-5	.670	.239	.082	.106	.209	-.039
LS-6	.664	.168	.018	.095	.169	.239
LS-7	.636	.249	.138	.080	.064	-.072
SE-1	.228	.776	.108	.141	.044	.029
SE-2	.210	.736	-.094	-.003	.258	.010
SE-3	.251	.716	.088	.001	-.029	.240
SE-4	.262	.675	.183	.223	.143	.075
SE-5	.267	.606	.158	.131	.223	-.016
PA-1	.202	.026	.801	.081	.076	.010
PA-2	.077	.155	.773	.171	.123	-.108
PA-3	.000	.117	.754	.220	.062	.022
PA-4	-.085	.047	.664	.052	.148	.263
AO-1	-.003	.228	.133	.721	-.008	.241
AO-2	.203	-.002	.180	.704	.139	-.038
AO-3	.107	.161	.173	.610	.009	-.019
AO-4	.215	.044	.099	.556	.374	-.118
LO-1	.089	.162	.099	.053	.749	.275
LO-2	.048	.068	.182	.273	.683	.002
LO-3	.092	.355	.125	.015	.640	.134
GO-1	.171	.219	.087	.370	-.037	.674
GO-2	.028	.067	.189	-.064	.394	.583
GO-3	.243	.034	-.110	-.163	.273	.582
Eigen Value	4.127	3.125	2.650	2.257	2.196	1.566
% of Variance	12.139	9.192	7.793	6.639	6.460	4.605
Cumulative %	12.139	30.866	38.660	45.299	51.758	62.490
KMO Measure=0.828 Barlett x ² = 3652.467, p=0.000 *p<.05, **p<.01, ***p<.001						

* LS: Life Satisfaction, SE: Self- Efficacy, PA: Participation Attitude, AO: Activities-Oriented, LO: Learning-Oriented, GO: Goal-Oriented

간주하여 분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2>에서와 같이 모든 변수의 Cronbach's Alpha계수가 0.6이상으로 나타나,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Table 2〉 Reliability Analysis

Variable	Sub-Variable	Cronbach's α
Culture	GO(Goal-Oriented)	.613
	AO(Activities-Oriented)	.703
Motivation	LO(Learning-Oriented)	.716
	LS(Life Satisfaction)	.846
Psychological Wellbeing	SE(Self- Efficacy)	.837
	PA(Participation Attitude)	.788

3.6 연구대상의 특성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성별, 연령, 결혼여부, 학력, 건강상태, 월 소득, 주거형태, 교육기간 등으로 구분하여 알아보았다. 그 결과 <Table 3>와 같이 남성이 159명(62.4%), 여성이 96명(37.6%)이었고, 연령은 60세~64세가 6명(2.4%), 65세~69세가 30명(11.8%), 70세~74세가 60명(23.5%), 75세~79세가 76명(29.8%), 80세 이상이 83명(32.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간은 1개월에 1~2번이 8명(3.1%), 1주일에 1번이 55명(21.6%), 1주일에 2~3번이 113명(44.3%), 거의 매일은 72명(28.2%)으로 나타났다.

<Table 3>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the Respondents

Classification		N(%)
Gender	M	159(62.4)
	F	96(37.6)
Age	60-64	6(2.4)
	65-69	30(11.8)
	70-74	60(23.5)
	75-79	76(29.8)
	> 80	83(32.5)
Marital Status	Married	166(65.1)
	Widowed	72(28.2)
	Divorce & Separation	8(3.1)
	Single	5(2.0)
	etc	4(1.6)
Education	No Schooling	7(2.7)
	Elementary	35(13.7)
	Middle	52(20.4)
	High	94(36.9)
	> University	67(26.3)
Health	Very Bad	0(0)
	Bad	27(10.6)
	Normal	96(37.6)
	Good	94(36.9)
	Very Good	38(14.9)
Salary per month	No Salary	71(27.8)
	< ₩ 100M	100(39.2)
	₩ 100-200M	55(21.6)
	₩ 200-300M	22(8.6)
	> ₩ 300M	7(2.7)
House	Owner	199(77.6)
	Rent(by year)	30(11.8)
	Rent(by month)	23(9.0)
	Rent(permanent)	2(8)
	etc	2(8)
Duration of education	1~2times per month	8(3.1)
	1times per week	55(21.6)
	2~3times per week	113(44.3)
	Daily	72(28.2)
	etc	7(2.7)

4. 연구결과 및 논의

4.1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가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은퇴 노인들의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가 참여노인의 심리적복지감의 하위요인의 하나인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상태, 월 소득, 교육기간의 3가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 변수들이 3개의 심리적복지감 하위변수 중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3가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통제하고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생활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먼저 Model I은 건강상태, 월 소득, 교육기간의 3가지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이들 변수 중 건강상태와 교육기간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Model 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²은 13.0%였다.

Model II에서는 3가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목표지향형($\beta=.176$, $t=2.829$, $p<.01$), 활동지향형($\beta=.244$, $t=4.118$, $p<.001$)이 생활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목표지향형과 활동지향형 두 개의 요인 중에서 활동지향형이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 중 학습지향형과 생활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²은 26.4%였다.

4.2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가 참여노인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은퇴 노인들의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가 참여노인의 심리적복지감의 하위요인의 하나인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상태, 월 소득, 교육기간의 3가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 변수들이 3개의 심리적복지감 하위변수 중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3가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자기효능감을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먼저 Model I은 건강상태, 월 소득, 교육기간의 3가지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이들 변수 중 건강상태와 월 소득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Model 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²은 13.4%였다.

<Table 4> Effect of Culture Activities Motivation on Life Satisfaction

Model		Model I			Model II		
		B	β	t	B	β	t
(constant)		1.947		6.969***	.089		.23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279	.291	4.901***	.194	.202	3.550***
	Salary per month	.081	.100	1.682	.064	.079	1.437
	Duration of education	.156	.159	2.703**	.115	.118	2.129*
Culture Activities Motivation	GO				.189	.176	2.829**
	AO				.330	.244	4.118***
	LO				.082	.084	1.305
F		12.527***			14.791***		
R ²		.130			.264		
ΔR^2					.134		

*P<0.05, **P<0.01, ***P<0.001

IDV(Independent Variables), GO: Goal-Oriented, AO: Activities-Oriented, LO: Learning-Oriented

<Table 5> Effect of Culture Activities Motivation on Self- Efficacy

Model		Model I			Model II		
		B	β	t	B	β	t
(constant)		2.046		7.657***	.093		.265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286	.311	5.262***	.193	.210	3.849***
	Salary per month	.093	.119	2.015*	.070	.089	1.687
	Duration of education	.101	.108	1.830	.070	.075	1.413
Culture Activities Motivation	GO				.120	.117	1.954
	AO				.280	.217	3.802***
	LO				.237	.252	4.081***
F		12.900***			19.452***		
R ²		.134			.320		
ΔR^2					.186		

*P<0.05, **P<0.01, ***P<0.001

IDV(Independent Variables), GO: Goal-Oriented, AO: Activities-Oriented, LO: Learning-Oriented

Model II에서는 3가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활동지향형($\beta=.217, t=3.802, p<.001$), 학습지향형($\beta=.252, t=4.081, p<.001$)이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동지향형과 학습지향형 두 개의 요인 중에서 학습지향형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형과 자기효능감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²은 32.0%였다.

4.3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가 참여노인의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

은퇴 노인들의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가 참여노인의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요인의 하나인 참여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건강상태, 월 소득, 교육기간의 3가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이 변수들이 3개의 심리적복지감 하위변수 중 최소한 한 개 이상의 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3가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목표지향형, 활동지향형, 학습지향형) 유형을 독립변수로 하고, 참여태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Effect of Culture Activities Motivation on Participation Attitude

Model		Model I			Model II		
		B	β	t	B	β	t
(constant)		3.388		13.198***	1.526		4.459***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ealth	.106	.127	2.029*	.035	.042	.717
	Salary per month	-.028	-.039	-.631	-.042	-.060	-1.054
	Duration of education	.100	.117	1.887	.062	.073	1.291
Culture Activities Motivation	GO				.020	.022	.337
	AO				.362	.308	5.069***
	LO				.196	.229	3.478**
F		2.790*			12.083***		
R ²		0.032			.226		
ΔR^2					.194		

*P<0.05, **P<0.01, ***P<0.001

IDV(Independent Variables), GO: Goal-Oriented, AO: Activities-Oriented, LO: Learning-Oriented

먼저 Model I은 건강상태, 월 소득, 교육기간의 3가지 인구통계학적 통제변수만을 투입한 모형으로 이들 변수 중 건강상태만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나타냈다. Model 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²은 3.2%였다.

Model II에서는 3가지의 인구나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고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의 요인을 투입한 결과 활동지향형($\beta=.308, t=5.069, p<.001$), 학습지향형($\beta=.229, t=3.4781, p<.01$)이 참여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활동지향형과 학습지향형 두 개의 요인 중에서 활동지향형이 참여태도에 대한 영향력이 조금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형과 참여태도 간에는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갖지 못하였다. Model II의 F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으며, 이들 요인들의 전체설명력 R²은 22.6%였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논문은 노인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가 참여노인의 심리적복지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 중 목표지향형과 활동지향형이 심리적 복지감의 생활만족도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 중 활동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이 심리적복지감의 자기효능감 형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셋째,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 중 활동지향형과 학습지향형이 심리적복지감의 참여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그러나 학습지향형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목표지향형과 자기효능감과의 관계, 목표지향형과 참여태도와의 관계는 변수 간 영향관계에서 상호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선행연구 중 김종식·임왕규(2014)의 연구결과[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김종식·임왕규의 연구에서도 참여동기가 높을수록 교육만족도가 높으며, 교육만족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상완(2010)의 연구결과[19]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즉 주민자치센터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 노인의 자기효능감과 심리적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첫째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정도는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둘째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정도는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셋째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자기효능감은 심리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전명수·송선희(2012)의 연구결과[20]에서도 교육 참여 동기 유형에 따라 삶의 변화에 영향이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가정, 사회·여가, 신체·정서, 행복감, 삶의 변화 전체에서 학습 지향 유형과 목표지향 유형이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문화교육활동의 참여동기를 중시하여 참여동기와 참여노인의 생활만족도, 자기 효능감, 참여태도와 같은 심리적복지감 형성과의 관계를 새롭게 밝힌 점에서는 새로운 성과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고령사회에서 은퇴 노인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노인복지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노인인구의 급증과 노인 빈곤율 증가, 노인 자살율 증가 등 우리나라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노인의 사회적 문제 해결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복지관 등 노인을 대상으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 현장 실무자들에게 문화교육 프로그램 참여동기를 중시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참여노인의 심리적복지감을 훨씬 높일 수 있음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크다고 본다.

본 연구는 연구내용에서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분석을 위한 조사대상자들이 수도권에 거주하여 향후 전국에 분포된 문화교육활동 참여자 표본에 대한 설문은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문화교육활동 참여동기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양할 수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목표지향, 활동지향, 학습지향 등 세 가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향후 연구에서는 참여동기를 다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심리적 복지감의 하위요인을 생활만족도, 자기 효능감 등 긍정적인 요인으로 한정하여 고찰함으로써 최근 문제시 되는 노인 우울증에 대한 심각성을 반영하여 참여노인의 심리적 요인 중 부정적인 요인인 우울에 대한 심리적 요인을 활용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우울 등 좀 더 다양한 하위요인을 활용하여 변수간의 효과성을 검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REFERENCES

[1] Jeong-seo Lee, "Analysis on the Comprehensive

Elements Affecting Cultural Welfare for the Old -Focused on the users of welfare facilities in five regions of Seoul",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2015.

[2] Sung-Jae Choi, "Aging Society", p. 209,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12.

[3] Chan-Ae J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Aged People's Culture and Arts Activities on Life Satisfaction - Analyses and Proposals for Activating Aged People's Fine Arts Education",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Catholic University, 2013.

[4] Yong-Gu Choi, "Factors Influencing on the Satisfactional Degree of the Elderly Participating in Cultural Art Activities",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Daegu Haany University, 2012.

[5] J. H. Kim, "An effective teaching plan on cultural education with in elementary social studies in the globalized era", Social Studies Education, Vol. 52, No. 3, pp. 51-70, 2013.

[6] J. R. Jo, "A Discussion and Analysis of Animation in a Culture and Art Education", Cartoon & Animation Studies, Vol. 35, No. 29, pp. 29-55, 2014.

[7] D. M. Kim, "Analyzing the Effects of Middle aged Women's Life Long Education Participative Motivation and Self Directed Learning on Program Satisfaction: Focusing on the Mediating Role of Education Service Quality", PNU Journal of Women's Studies, Vol. 25, No. 1, pp. 183~221, 2015.

[8] J. S. Kim · W. K. Lim, "An Impact on the Relationship among Elderly's Motivation to Participate in Lifelong Education, Education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Korea Contents, Vol. 14, No. 5, pp. 180-189, 2014.

[9] S. H. Choi · S. H. Song, "The Effect of elderly Wisdom on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Psychological Wellbeing and Quality of Child Relationship",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12, pp. 49-59, 2014.

[10] Lee, Gab-Suk · Lim, Wang-Kyu, "Effects of the Leisure Activity and Social Support of the Elderly

- on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Korea Contents, Vol. 14, No. 7, pp. 291-306, 2012.
- [11] E. G. Lee · S. S. Cho, “Relations among the Social Activity, Self-efficac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Urban Elderly”, Journal of Korea Contents, Vol. 14, No. 7, pp. 196-216, 2014.
- [12] Duk-Soon Son,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Focused on the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h.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2005.
- [13] H. J. Lee · H. J. Nam, “A Study of Korean Students’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Foreign Countries. -Korean students studying in the U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10, No. 4, pp. 121-141, 2003.
- [14] Y. H. Kim, “Gender Rela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e Elderly”, Demographic Korea, Vol. 27, No. 1, pp. 1-30, 2004.
- [15] Jin-Hee Bae, “Impact of Parenting Stress on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Grandparents Raising Grandchildren -Focusing on the Buffering Effect of Social Supports”,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2006.
- [16] S. W. Jeon, “Relations Between Self-Efficacy and Sense of Happiness of Elderly Participants in Life Sports Programs of Civil Center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Vol. 15, No. 2, pp. 239-250, 2010.
- [17] M. S. Jeon · S. H. Song, “Effects that the Type of Participation Motivation of Lifelong Education for the Elderly Influences in the Satisfaction of Education and Life-changing”, Journal of Korea Contents, Vol. 12, No. 8, pp. 438-448, 2012.
- [18] Jong-Sik Kim,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lderly’s Motivation for Participating in Lifelong Education and the Level of Their Educational Satisfaction as well as the Quality of life: With a Focus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Religious Life”, Ph. D.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of Venture Hoseo University, 2014.
- [19] Chung-bae Park, “Feelings of Self-Efficacy in Senior Citizens Participating in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its Effect on Self-Esteem and Quality of Life”, Ph. D.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hysical Education Kyunghee University, 2014.
- [20] Hankyung: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 2015. 05. 14.
- [21] Yonhap: <http://www.yonhapnews.co.kr/dev/html>, 2015. 01. 21.
- [22] Kyunghyang: http://news.khan.co.kr/kh_news/art_print.html artid. 2013. 01. 29.

최 경 민(Choi, Kyung Min)



· 2012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전문대학원(박사과정) 노인복지학과
 · 관심분야 : 노인복지, 문화교육, 복지상담
 · E-Mail : artpo2002@naver.com

임 왕 규(Lim, Wang Kyu)



· 2009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 전문대학원 교수
 · 관심분야 : 사회적기업, 고령친화 산업, 기술경영, 경영공학
 · E-Mail : wklim@hoseo.edu